국내 첫 '한글사찰사전' 나왔다

편저자 이정씨 '한국불교사찰사전' 5년작업 완성

1910년 이전 창건사찰 1534곳 체계정리

역사적 사실·설화등 토대 인물중심 서술

신라 사찰 687곳 '불법 가장 흥성'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판 사찰사전이 나왔다. 불교시대사(대표 김병무)는 1910년 이전 우리나라에 건립된 사찰과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세운 사찰중에서 역사추적이 가능한 사찰을 망라한 〈한국불교사찰사전〉을 5년여의 작업끝에 펴냈다. 편저자는 이정씨(경향신문 정보사업본부 차장대우·40).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1534개 사찰(寺庵 포함)의 소재지, 소속종파 연혁 문화재 건물 설화 참고문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불교사찰사전〉은 그간 국내 사찰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나와 불교학 불교(미술)사학 등 불교 인접학문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사전은 사찰의 창건과 중·개축 등 건물 이력(履歷)중심의 기존 서술방식과는 달리 불교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실과 설화 등을 참조, 인물중심의 서술을 시도해 불교관련 학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한 점이 돋보인다. 〈삼국유사〉 등 각종 역사서와 각 사찰의 사지(寺誌) 향토지 등에 대한 문헌조사 외에도 사찰관계자들과의 인터뷰, 현장조사 등으로 고증을 시도한 점도 학술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그간 사찰관련 참고자료로서 조선시대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가람고〉〈범우고(梵宇攷)〉 등과 권상로스님이 1964년에 집필한 〈한국사찰전서〉가 나와있지만 이들은 모두 한문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중복·오기, 무비판적인 자료 수록, 부정확한 위치의 기재 등 체계적인 사전으로서의 기능에는 미흡했었다.

이정씨는 "불교관련 사전이 다양하게 나와있는 일본의 경우 학문의 바로미터가 사전임을 잘 보여준다"면서 "우리 불교학계도 연합된 학문성과에 기초한 전문사전 출간을 활성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씨가 분석한 〈한국불교사찰사전〉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찰을 창건한 스님은 의상(70개)이며, 원효(68개) 연기도선(50개) 자장(37개) 태조왕건(24개) 아도(16개) 나옹혜근(14개) 진감혜소(12개) 보조지눌(11개) 무학자초(11개)스님 등이 많은 사찰을 창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건국가별로는 신라가 전체 1524개 사찰중 55%에 달하는 687개, 고려 278개(22%), 조선 153개(12%), 백제 99개(7.9%), 고구려 17개, 가락 8개 순으로 나타나 신라시대에 불법이 가장 흥성했음을 보여줬다. 사명(寺名)별로는 관음(15개) 문수(13개) 미륵(11개) 지장(7개) 약사(6개) 등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관음·문수·미륵신앙 등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보여줬다.

김재경 기자

나무야 나무야 — 신영복 지음

화제의 책

"최초의 비구니였던 싯다르타의 이모 마하프라자파티가 생후 이레 만에 어머니를 여읜 어린 싯다르타를 길어내었듯이 지금도 백흥암의 비구니 스님들은 말없이 또 한 사람의 싯다르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신영복교수(성공회대·55)가 쓴 에세이집 〈나무야 나무야〉 중 '가부좌의 한 발을 땅에 내리고 있는 부처를 아십니까(백흥암의 비구니 스님)'란 글의 한 구절.

역사와 현실이 살아 숨쉬는 간 데 없고 온통 어지러이(백담사의 만해의 일해) △모악산의 미륵 △눈이 달린 손은 생각하는 손입니다(천수관음보살의 손) △가야산의 최치원 등에서 불교적 단상이 돋보인다.

〈돌베개 5천8백원〉

불교적 단상 돋보인 국토답사 에세이

민족사 사외보 '불교사랑' 창간

32쪽 3천부 무료배포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불교출판계 최초로 계간 사외보 〈불교사랑〉을 창간했다.

창간호는 △저자와의 만남-〈불교공부〉의 저자 무비스님 △나의 책 인연 이야기-국어사전의 사연(고은) △마음의 바리때-염전나무(정찬주) △책 이야기-방한암 선사(위영란) △독서캠페인-나의 독서습관(윤창화) 등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16년간 오로지 불교전문서만을 출판해 불교학과 인도철학 발달에 기여해온 민족사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불교사랑〉 창간호는 불교출판계의 문화적 역량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형 4·6배판 32쪽 분량으로 3천부가 발행되어 무료배포된다.

(02)732-2403

출판학계

교계 출판사대표 '상복' 잇달아

장세우씨 → 세종문화상

김형균씨 → 출판공로상

교계출판사 대표들이 잇달아 출판관련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등 주목을 받았다.

대원사 장세우사장과 불지사 김형균사장은 제15회 세종문화상(출판·인쇄 부문), 제26회 한국출판공로상 문체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장세우사장(사진 왼쪽)은 지난 9일 한글날기념식에서 문체부가 선정한 제15회 세종문화상을 수상했다. 장세우사장은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 시리즈물 간행을 통해 예술·역사·철학을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종문화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상금 6백만원이 수여됐다.

김형균사장은 지난 11일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 책의 날 행사에서 제26회 한국출판공로상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내역은 △아동도서의 질적 향상에 기여 △출판의 질적 향상으로 문화발전에 공헌 △불교서적 출판보급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및 종교관 제시 등이다.

이평래씨 '신라불교…' 올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충남대 이평래교수의 저서 〈신라불교 여래장사상 연구〉(민족사 刊)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 96년도 우수학술도서(종교부문)에 선정됐다.

96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8개분야(종교분야 2종) 45종 도서의 해당 출판사에게는 종당 2백50만원의 출판보조금(인쇄 및 조판비 일부)이 지원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
4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5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6	49재 공덕과 의미	편집부	이바지
7	신도포교지침서	성 일	불 광
8	한국사찰의 주련	권영한	전원문화사
9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10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구입문의:(02)737-0695

새로나온 책…

▲누가 오늘 일을 묻는가(김용덕 저)=조계종 통합종단의 초대종정과 해인사 가야총림의 초대방장을 지낸 근대 고승 효봉선사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동아일보사의 '근대 인물 한국사' 총서에 들어있던 책을 법련사에서 수정, 재간행했다. 보조국사의 정혜결사 정신을 이어받아 '큰집이 무너지려 하니 불을 끄려라'고 외치며 무너져 내리려는 한국불교를 부흥시킨 스님은 철두철미한 수행상으로 구도자의 영원한 사표가 되고 있다. 〈불일 6천원〉

▲태교(성우스님 저)=지난 86년 출간되어 매년 1쇄를 거듭할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태교〉의 개정판. 김규대 군법사의 해설과 〈아함경〉 말씀을 새로 추가했다. 태교의 역사와 실천, 태몽을 비롯 △식(識)의 탁태(托胎) △업생(業生)이란 무엇인가 △원생(願生)이란 무엇인가 등 생명의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경전을 빌어 자세히 설명했다. 〈토방 6천원〉

▲불설 아미타경(성덕 편저)=세상빛을 못보고 유산된 아기영혼 천도를 위한 사경본 〈아미타경〉. 기존의 사경본 책과 달리 천도사경법회와 해원천도 의식의 의미와 방법, 교리적인 근거, 천도사경 영험담 등을 함께 실었다. 경전은 부처님의 실상 법신을 문자로 바꾸어 놓은 귀중한 법보이므로, 청정한 마음으로 경전을 옮겨쓰는 일은 부처님 법신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몸과 마음에 가득 채우는 성스러운 행위이다. 〈어진벗 6천원〉

▲경허선사(이흥우 저)=이흥우 시인(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경허선사(1849~1912) 평전. 지난 72년 〈주간조선〉에 연재되기도 했던 이 글은 저자 자신이 직접 경허스님의 족적을 따라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며 기록한 기행문이기도 하다. 경허스님의 일대기를 통해 최고의 진리(空性)를 향한 끝없는 구도의 열정을 되새기게 한다. 동화문화사 刊 〈空性의 피안길〉의 수정증보판. 〈민족사 6천8백원〉

명사추천 불서 100선

보조국사전서

임 희 동 〈변호사〉

부산에서 관사를 할 때 야산에 현장 검증을 갔다가 등도사에 들러 당시 경봉선사의 친견을 청하였다. 그랬더니 병으로 와석(臥席) 중이신데도 친견을 허락하셨다. 경봉선사께서 알아나 앉아 필자를 보고 "어디서 왔소?"라고 했다. 그래서 필자는 "부산에서 왔습니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경봉선사께서 아무 말씀도 아니 하시고 자리에 다시 누우셨다. 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어디서 왔소?" 이것이 결국 필자의 평생 화두가 되었다. 눈을 감으면 깜깜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어찌 알며 '어디서 왔는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불교와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보조국사전서(普照國師全書)〉(김달진 譯, 고려원 刊). 필자는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책을 통해 불교가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되었다. 필자는 보조스님과의 인연을 성현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올렸다. 만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보조스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마음이란 것이 깨끗하고 밝은 것이며, 시비(是非)와 이해(利害)를 다 알아서 행동을 하니 '몸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인연을 순(順)하게 하여 보자'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보조스님(1158~1210)은 고려시대의 성현으로 휘(諱)는 지눌(知訥), 호는 목우자(牧牛子)라 했다. 신라의 원효대사, 조선의 청허(淸虛)대사와 함께 우리나라 통불교의 우뚝솟은 묘고산(妙高山)이다.

〈보조국사전서〉에는 '권수정혜결사문' '수심결' '진심직설'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 '법집 별행록 절요 병입사기' '염불인유경' '화엄론절요서' '계초심학인문' '법보기 단경발문' '보조국사비명 병서'가 들어 있다.

'보조국사비명 병서'를 보면, 보조국사는 〈육조단경〉에 "진여자성(眞如自性)이 생각을 일으키매 육근(六根)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알지만, 그 진여자성은 바깥 경계를 때문에 물들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며 항상 자유롭고 자재하다"는 대목을 보고 심기일전(心氣一轉)하셨다 한다. 또 〈대혜보각선사어록〉을 열람하다가 "禪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날마다 객관과 상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는 문구에 이르러 홀연히 눈이 열리면서 본분(本分)을 활연체득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보조스님의 수도역정과 깨달음의 내용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보조국사전서〉는 불법을 공부하는 자가 먼저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에 의해 올바른 지견을 선택한 다음, 그 이론과 지식을 놓아버리고 자기 마음을 반조해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길을 찾으면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수도역정·깨달음 경지 자세히

마음 닦는 공부 안내서 역할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 외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언어라는 도구를 빌리기는 했지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불교에서는 생사를 초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죽는 것에도 걸리지 않고 사는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육체를 떠난 입장에서는 생사의 구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 입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초월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고 육체가 사는 것이지 마음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산다고 해서 별스럽게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감해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 법어 중에서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여시아문의 마음 밝히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